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4. 4. 11.
시민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3. 9.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4. 3. 11
- 다. 상정일자 : 제22회임시회 제1차위원회 (1994. 4. 11)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행정과장 유 태봉)

가. 제출이유

사회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보건증진의 일환으로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진료혜택을 주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코자함.

나. 주요골자

65세이상 경로우대중 소지자에게 무료 진료 확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진재)

- 가.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제2항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 면제 대상에 65세이상 경로우대중소지자를 추가하여 노인보건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 나. 이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행과 노인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송윤석 위원) : 현 보건소예산으로 늘어나는 노인을 모두 치료할 수 있으며, 현재의 인원으로 서비스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 답변(보건소장 김영호) : 정원 77명중 현원은 69명이며, 열심히 하면 현인원으로 진료가 가능하고, 금년 하반기까지 운영을 해보아서 안되면 그때 증원 요청을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0	제출일자 : 1994년 3월 9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	---

개정이유

사회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보건증진의 일환으로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진료혜택을 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함.

주요개정골자

65세이상 경로우대중 소지자에게 무료진료 확대(안, 제3조제2항제7호)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1. 12. 31 법률 제 4464호) 제15조
- 보건소법(1991. 3. 8 법률 제4355호) 제8조제2항
- 의약 12451-3962(1993. 11. 26)호 : 지시공문

개정조례(안) : 별첨

예산조치필요성 : 예산조치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65세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2항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대하여는 제2조 별표중 제2호, 제3호 대하여는 제2조 별표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1. 현행과 같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2. 현행과 같음.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3. 현행과 같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자의 검사 및 진료	4. 현행과 같음.
5. 무의탁자의 진료	5. 현행과 같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마포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 (신설)	6. 현행과 같음.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7. 65세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 8. 현행 7호와 같음

마포구민의날지정(안)심사보고서

1994. 4. 12
총무재무위원회

다. 상정일자: 제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94. 4. 12)상정, 의결.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 3. 9.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1994. 3. 11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문화공보실장 이 은규)

가. 제출이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우리구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도록 연중의 하루를